

Can You See...U

EXHIBITION

2011 / 01 / 09

ART IN CULTURE

2010. 12. 15 ~ 2011. 1. 20 313ARTPROJECT



로버트 롱바스 <Le train fantôme> 2006

예술가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직시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길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예술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다르기도 하다. <Can You See...>전은 프랑스 독일 일본 3개국의 작가 3인을 통해 그들이 보는 세상의 솔직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보고자 한다. 어느 형식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며 끊임없는 즉흥성을 추구하는 로버트 롱바스는 페인팅이든 조각이든 자신만의 자유롭고 표현적인 관점을 통해 작품 활동을 펼친다. 유난히 사람의 '뒷모습'만을 그리는 루스 부스만은 자신이 정말하게 관찰한 것들을 관객들이 해석하며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한다. 신야 오카야마는 즐거운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풍경 속에 인간의 불안과 고통 등 갈등의 요소를 넣음으로써 관객들에게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회화 프린트 조각 등 총 60여 점이 전시 중이다.

02)3446-3137